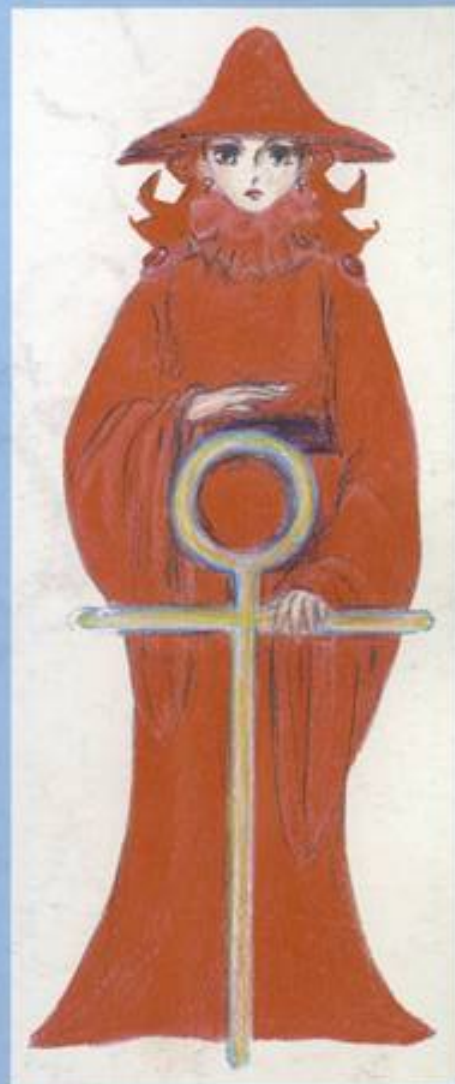


4 회

페미니즘 문화제

여성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자



4대 이화여성위원회

목 차	기획글 2 새내기 글 4	
너 졸업하면 뭘 할거니 -나, 여성, 일. 그 험난한 삼각관계	기획글 5 새로운 도전을 위하여 7	
	기획글 13 기지촌 여성의 현실과 삶 14	또 다른 나의 삶, 기지촌 여성
성폭력, 안전지대는 없다	학칙제정운동을 시작하자 21 일상 속의 성문화 25	
	기획글 31 인터넷에 올려진 김활란상 논쟁 32 한국의 근대 여성사를 공부하자 33 왜 김활란이 문제적인가? 37	지금부터 여성의 역사를 쓰자
	페미니즘 문화제 전체 일정 소개 43 여성위원회소개 45 문화제를 함께하는 여성밴드-무슨 연구소 46 이화의 여성주의 - WILL, 전사, 이화의 눈으로 47	

4회

페미니즘 문화제를
준비하며

글 풀라 씨 여성위원회 위원장

이화에서 페미니즘 문화제가 4화제를 맞게 되면서, 여성위원회는 좀더 발전적인 문화제를 준비하기 위해 3회 동안 치뤄졌던 문화제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작업을 해야만 했다. 그 작업의 첫 단계는 문화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답하는 것이었다. 우리 사회에서 문화운동이란 문예운동으로 사고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사고의 결과는 문화라는 영역을 매우 협소하게 보아 웬지 가벼워서 가치절하하기 쉬운, 그래서 곧잘 사치스럽거나 심각하지(?) 않은 운동으로 생각하게 한다.

페미니즘에서 문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가? 문화란 역사와 관련을 가지는 언어이다. 그리고 역사의 기술은 과거와 현재, 미래의 문화를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 역사는 과거 사실의 역사와 쓰여진(기록된) 역사로 구분된다. 그러나 역사에서 포커스는 언제나 남성에게 맞추어져 있었으므로, 여성에게는 과거의 사실과는 무관하게, 쓰여진 역사도 없고 따라서 쓰여진 문화도 없다.

문화란 삶의 양식임에도 불구하고 남성들이 규정한, 여성다운 삶을 사는 것을 제외하고는 여성 스스로의 문화는 없고, 있다 하더라도 계승되지 못한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따라서 기억하듯이 우리는 새로운 여성문화 창출과 여성문화의 실험이라는 표어를 내걸었던 것이다.

요컨대, 우리가 착목하는 문화란 삶의 양식으로서의 문화이다. 그렇기 때문에 표현 매개로서의 문화로 협소하게 사고하지 말기를 바라며, 동시에 페미니즘에 대한 일련의 편견들, 부르주아지 운동다운(?) 문화운동으로 비판하는 것은 더욱더 거부한다. 4회 페미니즘 문화제는 혼란스러웠던 문화제라는 이름을 정리하고 들어가기로 한다.

일상의 페미니즘 운동이 바로 문화운동일 수 있음은 이 때문이다. 그 첫단계로서 "여성의 눈으로 세상보기"가 필요한 것이고, 그에 이어지는 것은 바로 여성의 언어를 갖고 일상을 재해석하는 것이 될 것이다. 우리 사회가 여성 문화를 갖는다는 것은 바로 역사를 새롭게 쓰는 작업이다. 페미니즘 문화제에서는 그러한 일상의 영역 중 아주 일부분만을 다룰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하나하나의 작업들은, 여성 개개인 속 어딘가에 숨어들어 있을지 모르는 가부장제의 그림자를 발견하게 하고 지워내게 할 것이다.

언제나 일을 하고 있는 여성에게 있어 바로 그 "일"이란 어떻게 정의내려져야 하는지, 특수하게도 여성에게만 적용되는 이분법적인 시선은 여자 대학생의 아이덴티티를 가진 나에게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왜 모든 여성은 성폭력 피해자 혹은 예비 성폭력 피해자일 수 밖에 없는지, 왜 여성주의 담론은 여타 다른 담론들에 비해 힘을 가질 수 없는지를 의심해 보자. 그리고 그러한 인식의 정치성을 깨달아야 한다.

이화는 여성 공간이다. 그러나 이화의 문화가 순수하게 여성의 문화인지는 재고해 봐야 할 것이다. 이화는 혹은 이화인 개개인은 사회와 유리되어 존재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의 문화에 학습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우리는 마인드를 바꿀 필요가 있다. 우리는 더 이상 문화의 수용자로서 수동적이거나 방관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성"으로 살아나갈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바로 페미니즘 문화제는 이러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꾀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

여성 역사의 연대표를 새로이 만들기 위해 이제 "우리, 여성의 눈으로 세상을 바/리/보/자"

이화인이여, 때를 밀자

미녀(99, 페미니즘 문화제 자원활동단)

얼마전 세미나에서 난 보통의 이대생들과 여위 사람들은 다른 것 같다는 이야기를 했었다. 내 이야기를 들던 여위 사람들은 그럼 내가 생각하는 보통의 이화인은 어떤 모습이라고 반문했었다. 그때 내가 여위 사람들에게 했던 대답들, 생각들이 이화인에 관한 전형적인 이미지를 알게된 건 며칠 후 <3차성징>이라는 자료집을 보고 난 후였다. 글을 읽어가며 나는 내가 남성 중심적 사회구조 속에서 이야기 되어지는 이화인의 어머니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었음을 깨달았다. 순간 나는 내 몸에 때처럼 붙어있는 남성 중심적인 시선을 딱 박 밀어버리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신학성관 218호 여성위원회의 방을 처음 찾았을 때, 이름대신 서로 정겨운 애칭(?)으로 함께하는 여위사람들을 봤다. 순간 내가 여성이고 여성어기에 어떻게 보기만 해도 좋은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음이 너무 가슴벅차게 다가오던 순간이었다. 그 문을 처음 박차고 들어간 순간, 그 순간부터 난 세상을 여성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한다.

여성을 사랑하고 여성임을 자랑스러워하는 여위 사람들과 함께, 자활단이라는 이름으로 여성위원회에 들어왔지만 자활단을 넘어서 여성을 고민하고 공부하는 여위사람, 나아가서는 제대로 된 여성의 눈을 가진 한 여성으로 당당하게 자리매김 해 나가고 싶다. 사회 곳곳에 존재하는 여성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는 여성으로, 페미니즘 문화제는 그런 의미에서 나에게, 그리고 모든 이화인에게 의미있는 행사가 될 것이다. 우리가 지금껏 생각해오던 것들을 다시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았으면 한다. 그렇게 고민하며 여성의 시선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한다. 강요되었던 남성 중심적 사고가 모두 벗겨지는 날까지, 이화를 고민하고 여성을 고민하며 여성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다볼 수 있게 함께 나아가자.

물론 한 손에는 남성 중심의 사고라는 때를 벗겨낼 때밀이를 들고 말이다. ^^

4
페미니즘 문화제
둘째날

너 졸업하면 뭐 할거니?

-나, 여성, 일.

그 험난한 삼각관계

그려보기-

여성
과
일
그
어렵고
도
지난
한
이야기

졸업하면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은 지금 현재 급기이다. 최고 여성지도자, 커리어 우먼, 아름다운 프로..... 일하는 여성에게 붙여진 수식어들은 언제나 화려하다. 하지만 우리의 미래도 그렇게 화려한가. 얼마 전, 99년 이화여대의 졸업식에서의 설문조사를 기억해 본다. 대학 졸업생의 취업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위해 뛰어다녀야 했던 졸업식장에서 설문지 응답을 거부하던 몇몇 졸업생의 반응들이 생각난다. '놀아서 이런 거 하기 싫은데요', '백수라서 쓸 것도 없어요'라고 말하는 차가운 말투. 설문지를 들이민 것이 괜히 미안해지는 순간이었다. 여성들은 언제나 일해왔다. 끊임없는 가사노동을 단지 '희생'이나 '의무'라는 말만 으로는 감수해왔으며 직장에서의 수많은 차별과 불평등을 감수하고 일을 해야

했다. 그러나 언제나 결과는 허무하다. 성별 분업 이데올로기라는 유령으로 여성의 가능성을 축소하고 가사노동을 여성의 일로만 전달시키며, 어려운 시기가 닥치면 가족임금 이데올로기라는 유령을 내세워 남성 가장 중심의 대책만이 난무한다.

사회적, 구조적으로 여성의 일이라는 것들을 폄하하고 비가시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격증을 준비하고 학점을 잘 받기 위해 노력한다고 그다지 달라질 것은 없다. 여전히 군가산제는 제대 군인 남성에게 유리한 출발점을 제공함으로써 여성을 소외시키며, 적성이나 능력보다는 외모, 키가 중요하게 여겨지며, 어렵게 잡은 직장에서는 성희롱을 당하기가 쉽상이다. 그리고 정리하고 시에는 어김없이 0순위로 선택(?)되어 쫓겨나며 심지어 사직을 강요하는 방법으로 의도적인 성희롱을 행하는 일들마저도

일어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한편으로는 97년 말부터 경제위기라는 상황이 오고 여성들이 직장에서 내몰리면서 '결혼은 평생직장', '여자는 그래도 결혼하면 된다'는 식의 말들이 다시 유행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실제로 대학 졸업 후에 결혼을 하고자 하는 여성들이 늘어났으며 맞선을 주선하는 몇몇 이벤트 회사에서 대학생의 비율이 IMF이후에 급증했다는 통계가 그 사실을 입증해 준다. 그러나 여전히 달라질 것은 없다. 일정한 노동시간도 없이 가족이 원한다면 24시간 언제나 가족을 위해 청소, 설거지, 빨래에서부터 감정서비스까지 제공하며 자신의 것들은 언제나 마지막 순간에 챙기면서도 '집에서 노는 여자' 취급을 당하거나 '여자라면 누구나 해야 하는 당연한 의무'로 여겨질 뿐이다. 게다가 결혼을 한 여성에게 취직의 문은 더욱 좁

아지며 그렇다고 지금의 시기에 남편, 남성 가장 1인의 월급으로 가족을 부양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현실이 이러한데도 우리는 끊임없이 커리어 우먼, 여성 최고지도자라는 환상에 찬 말이나, '결혼은 평생직장' 따위의 말만을 들어야 하는가. 현실적이면서도 나의 미래를 바라보고 고민할 만한 이야기들을 들어야 하지 않을까.

지금 여성들이 자신의 일에 대해 꿈을 꾸는 것은 금기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꿈을 꾸며, 그 꿈을 조직하고자 한다. 나, 여성, 일, 그 험난한 삼각관계 그리기. 그것은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여성인 나의 생존권, 여성의 일에 대한 재평가와 재가치화, 그리고 나의 미래에 대한 계획을 위해 삼각관계를 그려보고자 한다. 물론, 그것은 개인적인 고민만을 고민하거나, 각각 다른 모

양의 삼각형을 그리는 것은 아닐 것이다. 지금 이 사회에서 무엇이 문제이며, 여성과 일이라는 관계 속에서 는 도대체 어떤 문제들이 숨어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삼각관계 그리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우

'졸업하면 뭐해요?'라는 질문을 할 때마다 대다수 여성들의 얼굴이 일그러진다. 이 어려운 시기에 여성취업률이 밑바닥을 맴도는 상황임을 뻔히 알면서도 졸업을 앞둔 여대생들에게 꿈임 없이 되묻는다. 아주 즐거운 표정으로 '회사에 취직했습니다'라고 대답하는 이보다는 '휴학하고 어학연수를 갔다 오려구요' 등의 무엇인가를 준비 중이라고 말하는 이들이 많다. 그래도 이들은 낙관적이다. 더욱 안타깝게 느끼는 것은 '결혼이나 하려구요' 혹은 '아무것도 안해요'라고 꼭 던지는 답변을 하는 여학생이 점차 늘어난다는 것이다.

새로운 도전을 위하여 서울시립대 여성학 강사 박홍주

물론 구제금융이라는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서 '취업은 필수'였던 때가 지나갔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많을 것이다. 올해의 신규실업자만 30만에 육박하고, 대기업의 구조조정이 끝나면 실업자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밖에 들먹이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희망을 가지라고 말하는 이들도 드물며, '결혼=취직'이라고 강변하는 사람들도 늘어난다. 그리고 암울한 상황에서 절망하는 이들에게 던져진 동아줄은 의외로 너무 약하다. ☐

더욱 안타깝게 느끼는 것은 '결혼이나 하려구요', '아무것도 안해요'라고 답변하는 여학생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신규노동시장에 진입하는 대졸 예정자 중 2만명을 인턴제도와 직업훈련을 통해 흡수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기업 및 연구소, 민간 비영리 단체에 인턴제도를 도입하여 대졸 예정자들의 신규실업을 억제하고 취업능력을 제고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체험할 수 있는 일은 자칫 실무 처리에 국한될 가능성이 크며 충분한 준비없이 시행되는 졸속 전시 행정으로 끝날 수 있다. 더욱이 향후 채용 전망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부작용도 제기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노동부가 인턴제도에 여성할당제 도입을 강조하고 있으며, 그 채용비율이 6(남):4(여)로 여성채용공채의 입사 비율보다 높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1차 서류와 2차 면접 시험을 거쳐 채용되는데, 1·2차로 나뉘는 면접의 비중이 매우 높다. 대부분 업무 관련 면접과 인성 면접을 보는데, 관련 분야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자격증, 자신의 장점을 부각시키는 화술 등이 요구된다. 물론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들어가 받는 급여가 월 45 - 70 만원이라는 것, 평가기준이 엄격하다는 것, 기간이 끝난 후 정규직원으로 채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등의 단점을 가진다.

정부 지원 인턴제 정부의 지원금으로 미취업 대졸자에게 취직 기회를 제공 (02-1588-1919)

노동부 고학력 대책팀 각 대학에서 2만명을 선발하여 기업에 보낸다 (02-503-3845)

효면 뱅크 정보 통신 분야 중 해외 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프로그램 (02-551-5800)

SK 채용 상담실 수시로 원서를 접수, 타회사의 정보까지 제공 (02-728-0222)

국회 인턴 사원 4월중 채용 예정. (02-788-2081)

삼성 채용된 인턴 사원은 1년의 기간이 끝난 뒤 종합평가를 실시. 대부분 정식 사원으로 채용할 계획.

대우 인턴 사원 중 절반 정도를 정식 사원으로 선발할 방침.

오뚜기 6개월간 과정을 거친 뒤 결격 사유가 없는 이상 전원 정규 사원으로 채용할 계획.

문화일보 결격 사유가 없는 한 대부분 정식 직원으로 채용할 계획.

현대증권 6개월 교육 후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정식 사원으로 채용될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각 기업 및 담당하는 기관에 따라 차이를 가지므로, 기업에 취직하고자 하는 여성이라면 구체적인 정확한 정보를 통해 기업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학력 직업훈련제도 또한 마찬가지이다. 현재의 직업훈련이 가진 문제점은 바로 공급자 중심에서 교육이 전개된다는 것이다. 인력을 필요로 하는 기업에서 선호하여 취업과 연결될 수 있는 직업훈련이 아니라는 점이다. 실제 대기업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일하던 한 여성은 정부의 재취업훈련 프로그램을 며칠동안 고민한 뒤 요리사 양성반에 들어갔고, 지금도 열심히 배우고 있다. 기업에서 선호할 전문 프로그램은 대부분 남성 프로그래머에게 우선권이 주어져서 밀려났고, 자신이 알고 있는 프로그램을 들을 수는 없고... 결국 재취업의 기회가 올 때까지 요리를 배워서 '한 끼 식사라도 맛있게 먹어보자'는 목표 밖에 가질 수 없었던 것이다. 경력 5년의 프로그래머가 요리사 양성반에 들어가야 하는 직업훈련제도의 허점을 보완하지 않는 이상 신규실업자들에게 취업의 꿈은 요원할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대로, 정부와 기업에서 여대생들에게 내미는 동아

줄은 줄어들기 쉽다.

우선, 면접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는 것도 여성에게는 불리하다. 성차별적인 질문에 어떻게 답하는가에 따라 취업 여부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언제 결혼할 것인가? 결혼해도 직장은 다닐 것인가? 이런 질문에 대해 너무 쉽게 답하는 것도, 자신의 솔직한 생각을 말하는 것도 취업 기회를 박탈당할 수 있다. 당시 면접관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듣고 싶어하는 답이 있기 때문이다.

둘째, 여성들이 대부분 선택하는 직무 및 부서가 점차 축소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홍보, 교육 등의 주변 부서를 지망하지 않더라도 배치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 주변 부서들을 통합하고 하청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존의 인원들을 대상으로 하청화하거나 독립시키는 상황임을 감안하여,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가를 숙고한 뒤 선택해야 한다.

셋째, 기업이 선호하는 여성으로 변해야만 취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기업이 원하는 인간형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설명 자신과 부합되지 않는 기준이라고 하더라도 선택권은 기업에 있기 때문에 대학생활 전반을 통

정말 여성들에게 직업의식이 없는가? 지금까지 여성들에게 부여된 많은 고정관념을 생각해 보자.

해 기업의 기준이나 취향에 맞춰나가야 한다. 기업이 선호하는 동아리 활동, 언어실력, 외모관리, 학점 등을 고려해 보면, 이제 대학은 취업을 위한 전쟁터가 되어 버렸다. 동아리 활동으로 들어보자. 봉사활동이나 외국어 등의 한정된 동아리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해야 한다. 여기서 적극적이란 동아리 활동을 주도하는 리더 역할을 했는가, 리더 역할을 통해 얼마나 기여하고 변화시켰는가 등의 기준으로 본다면, 모든 동아리 활동에서 위계와 서열에 따른 권력 지향적 활동을 활발하게 해야 한다.

넷째, 정부와 노동부의 대응이 너무 미흡하다는 점이다. 인턴 혹은 정식 직원으로 채용되더라도 이제 기업은 쉽게 해고할 수 있다. 고용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정리해고의 우선 대상이 되었던 최근의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정부의 강력한 대책이 얼마나 시급한지 알 수 있다.

줄어지기 쉬운 동아리를 부여받고 도서관에서 땀흘리며 공부하는 많은 여학생들이 바라는 것은 공평한 기회이다. 만약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지금 하는 노력을 중단할 것인가? 정말 여성에게 직업의식이 없는가? 지금까지 여성들에게 부여된 많은

고정관념들을 생각해 보자. 진정 여성들이 일하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일이 무엇인가?

직업의 의미는 각 시대와 문화에 따라 상이하다. 전통사회에서는 신분이나 중요했지만 산업사회에서 직업은 생존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다. 여기에는 경제적 의미와 더불어 개인의 사회적 정체성을 구성하는 동시에 일종의 권력기반을 구성하는 확장된 의미들까지 포함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제 남편의 직업을 통해 경제력, 사회적 정체성을 확보하는 것을 넘어 '내가 어떻게 살기 원하는가'라는 가장 원초적인 질문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우리는 모두 원하는 직업에 대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 직업 그 자체에 대한 매력일 수도 있지만, 그 직업이 제공하는 삶의 방식 혹은 한달 수입의 액수처럼 구체적인 생각일 수도 있다. 그러나 특히 '여성지도자', '성공한 여성' 등의 성공 신화들에 매혹당하기 쉬운 시기에 나만의 삶, 내가 원하는 삶의 방식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기회를 가져야만 한다. 원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그것이 바람직하거나 진정 원하는 것이 아니었다면 자신의 삶에서 보람을 느끼기 힘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또 다른 나의 삶, 기지촌 여성

쉬운 듯 하지만 하기 힘든 기본적인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야만 한다.

1. 나는 누구인가?

대중매체가 주도하는 소비사회에서 나의 현실을 얼마나 직시하고 있는가?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나를 얼마나 소중하다고 생각하는가? 평생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가? 남을 도울 수 있는 마음가짐과 힘을 가지고 있는가? 성공한 소수 여성들의 삶을 지향하는 환상을 버리고 자신의 현실을 정확하게 바라보는 것에서부터 튼튼한 미래는 만들어 진다.

2. 주변의 사람들을 소중하게 생각하는가?

내가 힘들 때 격려해주고 미래지향적인 인생을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서로의 목표를 신뢰하고 지지해 주며, 새로운 가능성을 창조해 갈 수 있는 지지집단이 있는가? 나의 인생은 누군가와의 만남으로 변화될 수 있다. 친밀함에 매몰되어 '너와 나'만을 돌보는 이도 있겠지만, 뜻하지 않은 만남으로 새로운 직업과 미래를 만들어 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어떤 여성은 영화를 싫어했고 그 일을 할 생각도 전혀 없었다. 그러나 우연히

만난 한 사람을 통해 영화의 매력을 알게 되었고, 지금은 영화 기획을 하며 한국 영화의 발전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생활하고 있다. 이처럼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소중할 뿐 아니라 나와 함께 다양한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준거집단이 될 수 있다. 지금부터 사회적으로 여성들이 힘이 없기 때문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자. 그리고 친구, 선후배, 스승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정성을 들이자.

3.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았다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어떤 이들은 취업을 위해 1학년부터 철저한 사전조사와 실력을 갖추면서 기업이 선호하는 인간형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렇게만 하면 취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취직해서 남 앞에 당당해질 수 있다는 것 하나를 위해 나를 바꾸려고 노력한다는 것은 힘든 선택이다. 더욱이 그 일이 원하는 일이 아닐 경우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힘들기에 신중해야 한다. 내가 원하는 일에 필요한 것을 구체적으로 알고 꾸준히 준비하고 노력하는 것만이 즐거운 삶을 가능하게 한다.

이 글을 읽는 이화인들은 참 낯설을 것이다. '또다른 나의 삶, 기지촌 여성'이라니? 나와 그녀들이 무슨 연관이 있지? 나는 그녀들과는 전혀 달라.
한 친구가 말했다.
"섹스샵에 가면은 고깃덩어리에 구멍을 뚫어놓은 자위도구가 있대" "어떤 대학교의 남학생들은 지나가는 여학생들의 몸매를 보면서 점수를 매긴다더라"
이렇게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내 몸이 이곳저곳에서 전열되고, 쉽게 성적 욕망의 대상이 되는 현실 속에서 과연 우리가 '자유롭다',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 '나는 기지촌 여성과 다르다'고 말할 수 있을까?
우리가 기지촌 여성들과 그녀들의 삶을 바라보는 것은 바로 이 점에서부터이다. 그녀들이 나와는 전혀 동떨어진 공간에서 자전해서 미군을 상대로 몸을 팔고 있을 뿐, 나와는 별개의 사람들이라는 생각.....위험하지 않을까?

기지촌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은 '여성'을 중심으로 두고 있다. 그것은 우리가 여성으로서의 자기 자신을 강하게 느끼기 때문이고, 그것을 따라갈 때 기지촌 여성들과 나의 삶을 연결하는 고리를 발견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다.
가부장제는 어떠한 상황속으로도 스며들어 오며 여성들을 주변으로 몰아넣고, 인간이 아닌 사물의 위치로 몰아넣는다. 거기에는 기지촌 여성도 우리도 예외가 아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지촌을 바라본다.
또한 기지촌 여성들의 삶과 문제점을 바라볼 때 정작 그녀들의 삶을 소외시키지 않고 주변부로 내몰지 않도록 끊임없이 고민해야 할 것이다. 우

기지촌 여성의 현실과 삶

김현선

1. 기지촌의 현실 - 동두천 지역을 중심으로
2. 기지촌 매춘여성의 문제
3. 대안을 찾아서 - 새움터 직업재활 프로그램

7 기지촌의 현실 - 동두천 지역을 중심으로

'기지촌'의 사전적 의미는, '군부대 인근에 형성된 촌락'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에 존재하고 있는 기지촌의 모습을 바탕으로 다시 '기지촌'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규정한다면, 아마 '경제·문화적으로 미군기지의 절대적인 영향을 받고 있으며, 미군을 상대로 하는 매춘과 '상업'을 기반으로 유지되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십개의 클럽과 수백명의 매춘여성, 그리고 수천명의 미군들이 뒤섞여 있는 동두천시 보산동은 이런 '기지촌'의 실재적 의미에 가장 가까운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곳에는 주한미군 중에서 최전방에 위치하고 있는 미 2사단의 사령부인, 캠프 케이시(Camp Casey)가 주둔하고 있습니다. 미군과 카류사를 합쳐, 약 1만8천명의 병력 - 주한미군 전체의 절반 - 으로 추정되는 미 2사단은, 파주, 동두천, 의정부를 중심으로 20여개의 캠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미군기지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며 광범위합니다. 농업 등 생산관련 산업이 몰락하고 미군기지에서 흘러나오는 외화에 의존하는 소비중심적 산업으로 경제구조가 재편되며, 매춘을 기반으로 하는 퇴폐적인 서비스업이 기형적으로 발달하게 됩니다. 또한, 이질적이고 저급한 미국의 군사문화

가 확산되어 기존의 지역문화와 충돌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화적인 충돌은 기지촌이 형성된 초기에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지촌의 경제적 필요성으로 인해 무시되어 버립니다. 또한, 이러한 경제적인 이득과 더불어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주둔이 필요한 정부에서는 기지촌을 관광특구라는 형태로 외부적으로 고립시킴과 동시에 내부적으로는 더욱 강화하게 됩니다.

퇴폐적인 미국문화의 범람, 지역 아동들에게 미치는 비교육적 영향, 미군에 의해 저질러지는 범죄 등 기지촌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상당히 많지만,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매춘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기지촌 지역의 매춘여성들은, 매춘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불평등한 한미관계가 겹쳐짐으로써 더욱 심각한 착취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1997년 새움터의 실태조사 결과, 동두천 지역의 매춘여성의 수는 약 600~800명 정도이며, 최근에 급증하고 있는 필리핀 매춘여성까지 포함하면 10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그러나, 동두천 시청에서는 단지 60여명의 여성만이 매춘에 종사하고 있다고 발표하였으며 이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나 해결책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 기지촌 매춘여성의 문제

앞서 언급한 것처럼, 기지촌 지역의 매춘

여성이 겪게 되는 문제는 복합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즉, 성(性)을 매개로 재화를 교환하는 '매춘'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종속적인 한미관계와 봉건적인 가부장제를 만나면서 더욱 강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기지촌 매춘여성들은 어린 나이에 강간 등의 성폭행을 당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성들에게 강요되어 온 순결 이데올로기를 통해, 피해 여성들은 이러한 경험을 자신의 잘못으로 돌리게 됩니다. 이러한 자책감과 사회적으로 강요된 죄의식, 자신의 상처를 이해하지 못하는 가족과 학교, 그리고 저학력의 여성이 정당한 대가를 받으며 일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는 상황이 겹치면서, 이 여성들은 가출과 매춘을 택하게 됩니다. 일단 이렇게 매춘을 시작한 여성들에게는 다른 어떠한 기회도 제공되지 않습니다. 매우 드문 경우이긴 하지만 매춘을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성들은 자신의 상처와 죄의식, 사회적 편견을 극복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매춘을 선택할 수 밖에 없게 됩니다. 자신의 잘못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매춘을 계속하게 되고 이 여성들의 사회 재적응은 더욱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밟아 온 여성들이 마지막으로 선택하게 되는 것이 기지촌입니다. 봉건적인 잔재가 여전히 힘을 발휘하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매춘여성은 다른 직장을 선택할 수도, 가정을 이룰 수도 없

습니다. 이 여성들이 매춘이라는 굴레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미군과 결혼해서 미국으로 이민가는 것뿐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기지촌에서 미군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미국으로 이민을 간다는 꿈을 이루는 여성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미국인 중에서도 가장 하층계급에 속하는 미군들에게는 이 여성들이 성적 노리개일 뿐입니다. 해외로 파견되는 미군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곳이 바로 한국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미국인을 대하는 태도가 전반적으로 우호적인 편이며,싼 가격으로 술과 여성을 마음대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들어 기지촌으로 유입되는 여성들에게 조금 다른 양상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매춘의 경험이 없는 젊은 여성들이 돈을 쉽게 벌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으며, IMF 이후 대량실업 사태로 인해 직장을 잃고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워진 여성가장들이 매춘을 시작하는 것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한국 여성에 비해 훨씬 적은 임금을 지불할 수 있으며 미군과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필리핀 여성들이 '프로덕션'이라고 불리는 인신매매 업체를 통해 한국의 기지촌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여성들은 연예계통에 취업이 가능한 E-6비자(일명 엔터테인먼트 비자)를 가지고 입국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미군을 상대로 하는 클럽에

서 스트립 댄서로 일을 하거나 매춘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기지촌으로 유입되어 매춘을 하게되는 것을 개인적인 이유만으로 치환시킬 수는 없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불평등한 한미관계, 미국과 미국인에 대한 그릇된 환상, 저학력 여성들이 겪는 취업기회의 절대적 부족(이 문제는 IMF 이후 더욱 심각해지고 있으며, 또한 필리핀 여성들이 자국 내에서 겪게 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한국사회의 가부장적 편견 등이 이러한 기지촌 문제의 바탕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릇된 희망을 갖고 기지촌을 찾아오는 여성들은 결국 여기서도 좌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히려 사회적으로 고립된 기지촌에서 더 심한 착취와 소외를 당하게 될 뿐입니다. 한국정부와 미군에 의해서 정책적으로 양성화된 기지촌에서 이 여성들의 인권과 행복은 철저히 묵살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이 여성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미군에 의해 목숨을 잃거나 늙어서 혼자 쓸쓸히 죽어가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3 대안을 찾아서-새움터 직업재활 프로그램

새움터는 1996년 11월 동두천에서 설립되었습니다. 기지촌 여성운동을 해오던 현장 활동가들과 기지촌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던 학생들이 힘을 모아 새움터의 문을 열

었습니다. 설립 초기에는 지역 아동을 위한 공부방과 밤보육 놀이방, 여성들을 위한 상담과 공동식사 제공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이후 약 1년여의 준비기간을 거쳐 기지촌 매춘여성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직업재활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직업재활 프로그램이란, 상담을 통해 스스로의 상처를 극복하도록 하는 동시에 건강한 노동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신의 힘으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새움터에서 선택한 직업재활 프로그램은 허브(Herb)를 재배, 가공하여 판매하는 것이었습니다. 허브란 인간에게 이로운 향을 가진 식물의 총칭으로, 대표적인 것은 로즈마리, 라벤다 등이 있습니다. 저희가 허브 프로그램을 택하게 된 것은 여성들이 식물을 돌보면서 자신의 손으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노동의 경험을 간접히 원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식물의 향기를 통해 심리적인 안정과 정서순화의 효과도 얻을 수 있는 '향 치료 (아로마 테라피 AromaTherapy)'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프로그램의 선정과정부터 매춘여성들을 참여시킨 것은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프로그램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작년 7월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의 여성발전기금과 시민운동지원기금의 지원을 받음으로써 직업재활 프로그램은 새로

운 전기를 맞게 됩니다. 비록 큰 규모는 아니지만 여성들을 위한 공동작업장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지난 12월에는 이 공동작업장에서 만들어진 작품들을 모아 '동두천 아리랑'이라는 전시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행사를 통해 기지촌 매춘여성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을 극복하고, 직업재활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자리였습니다.

현재 공동작업장에서는 허브와 우유팩을 이용한 엽서와 타면서 허브향이 나는 양초, 허브향 포푸리(향주머니), 허브향이 나는 종이꽃 바구니 등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이디어는 모두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들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현재 4명의 여성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으며 전업을 위한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여성은 20여명에 이릅니다. 그러나, 안정적인 판매수입이 확보된다면 더욱 많은 여성들이 전업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지촌의 매춘여성들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애정어린 관심이 필요합니다. 더 이상 그들이 소외되고 무시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삶을 꾸려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기 위해서 여러분의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우

새움터 연락처

▶ 전 화 : 0351 867 4655

▶ 통 신 : SWOOM(천리안, 나우누리),

SWOOM@CHOLLIAN.NET

성폭력,
안전지대는
없.다.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우리는 언제나 그 사건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앞서 그것이 성폭력이나 아니냐 라는 성폭력의 개념을 둘러싼 논쟁에 먼저 휩싸인다. 이는 고대난동을 집단성폭력으로 규정할 때도 그러하였다. 성폭력은 보편적으로 가장 극악한 폭력으로 인식되지만 그때의 범위가 너무도 협소하기 때문이다. 현재의 성폭력에 대한 담론들은 그 자체가 성폭력적이며 여성배제적이다.

성폭력은 명백한 하나의 폭력이다. 그러나 동시에 성폭력은 특수하고 철저한 폭력이다. 그러나 성폭력의 원인은 항상 여성의 무책임성으로 되돌려 진다. 그리고 피해자는 '정조를 잃은 여성'으로 낙인찍힌 채 내부의 자책과 외부의 따가운 시선을 받으며 일생을 살아가야 한다. 성폭력 피해자는 침묵해야 한다. 왜냐하면 성폭력을 폭로하는 것, 그리고 그것의 해결을 위해 그것이 폭력이었음을 입증하는 것은 그녀의 몫이며 그러한 과정들 자체가 참을 수 없는 성폭력이기 때문이다. 성폭력, 그 앞에는 '어쩔수 없는 성욕에 못이겨', '그녀도 원했다고 생각해서', '분위기 때문에', '몰라서' 등의 수식이 따라다니며 이것이 항상 성폭력을 은폐

학칙제정운동을 시작하자

하고 정당화한다. 이런 편견은 성폭력의 해결과정에서 실질적으로 피해자에게 더 큰 피해로 돌아간다.

성폭력은 우연한 한 순간의 문제가 아니며, 일부의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다. 성폭력은 태어날 때부터 자신의 몸에 대한 결정권을 갖지 못한 모든 여성들의 존재를 위협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모든 여성들은 단지 여자라는 이유로 전 생애에 걸쳐 잠재적인 그리고 직접적인 성폭력의 피해자들인 것이다. 또한 성폭력은 선천적인 악인에 의해 자행되는 우연한 행위가 아니라, 성별의 불평등한 권력관계를 바탕으로 성억압과 성폭력을 구조화시키고 있는 현 사회에 의해, 누구에 의해서도 누구에 대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피해자는 '정숙치 못한 여성'으로 '몸을 버린 여성'으로 고립되는 또 하나의 성폭력을 경험하고, 가해자 또한 고립된 범죄자로 낙인찍히면서 인격적으로 철저히 배제된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몸에 대한 타인이 침해할 수 없는 권리를 가지며 이러한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상대방의 동의없이 박탈, 침해하는 모든 행위는 성폭력이다. 일상에서는 성폭력은 '객관적'으로 성폭력의 정도가 얼마나 심한 것인지, 성기가 삽입되었는지 아닌지, 어느 정도 삽입되었는지에 따라서 구분된다. 그러나 이 때의 객관은 객관을 위장한 남성의 주관에 불과하다. 여기에 여성의 주관과 여성적 사고는 '객관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조금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남성중심적, 성기중심적인 성인식이 지배적인 현실에서 여성의 성은 단지 남성의 욕구를 채워주는 육체적인 대상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난다. 바로 이러한 현실이 수많은 성폭력을 양산하고 있는 것이다. 성폭력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상대방의 성적자율권을 침해한 행위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성폭력에 의한 피해는 피해자의 주관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며 이것은 양적으로 구분될 수 없다. 성폭력의 정도를 임의로 구분하고 그에 맞는 처벌방식을 도식적으로 끼워 맞추는 것은 성폭력의 본질을 은폐하는 결과만을 낳을 뿐이다.

대학은 성폭력에서 벗어난 공간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남성중심적, 성기중심적인 성문화가 팽배한 사회에서 대학사회 또한 벗어날 수는 없다. 대학 내에서의 성폭력 사건은 끊임

없이 발생하며 '사이렌'이 울리고 있다. 그러나 일상과 대학을 구분짓는 선은 너무 미묘하여, 그 선을 넘지 않는 한, 대학 내에서의 성폭력 사건은 끊임없이 발생하며 '사이렌'이 울리고 있다. 그러나 일상과 대학을 구분짓는 선은 너무 미묘하여, 그 선을 넘지 않는 한, 대학 내에서의 성폭력 사건은 끊임없이 발생하며 '사이렌'이 울리고 있다.

그러나 대학이 '사이렌'이 울리고 있다. 그러나 일상과 대학을 구분짓는 선은 너무 미묘하여, 그 선을 넘지 않는 한, 대학 내에서의 성폭력 사건은 끊임없이 발생하며 '사이렌'이 울리고 있다. 그러나 일상과 대학을 구분짓는 선은 너무 미묘하여, 그 선을 넘지 않는 한, 대학 내에서의 성폭력 사건은 끊임없이 발생하며 '사이렌'이 울리고 있다. 그러나 일상과 대학을 구분짓는 선은 너무 미묘하여, 그 선을 넘지 않는 한, 대학 내에서의 성폭력 사건은 끊임없이 발생하며 '사이렌'이 울리고 있다.

이대는 여대라는 이유만으로, 성폭력은 그저 타 대학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일로 생각하기 쉽지만 이와 또한 예외가 될 수는 없다. 이와 앞 거리에서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는 광고에서부터, 96년까지 12년간 지속된 대통령에서의 고대생 집단 성폭력, 온라인 상에서의 성폭력, 이

대라는 이름을 달고 유포되는 포르노 비디오, 그리고 공론화조차 되지 못한 너무나 일상적인 성폭력들...

권력에서 배제된 여성들은 성적대상으로 치부되기 쉽고, 이런 현실 사회에서 여성만으로 이루어진 공간인 이화는 남성들에게 성적인 상징으로 보여지고 대상화되기에, 수많은 성폭력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다. 현실 사회에서 여성은 성폭력의 일차적 피해자가 될 수 밖에 없고 이화는 성폭력의 잠재 피해자 집단인 것이다.

지금까지 이화에서는 성폭력 사건의 신고가 들어오면 여성위원회를 주축으로 하여 대책위원회를 만들어 성폭력 사건의 해결을 위한 활동을 하였다. 그러나 이는 사건해결을 촉구하고 공론화시키는 단기적이고 일화적인 미봉책일 뿐, 성폭력의 근절과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었기에 성폭력은 되풀이되고 가해자의 처벌조차 호지부지 끝나곤 하였다. 이에 사건 해결에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할 수 있고 실질적인 해결을 할 수 있는 성폭력근절을 위한 학칙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이화 안에서 학칙은 잠재 피해자로서, 다른 누군가가 지켜주길 기다리기 이전에 우리 스스로 권리를 지켜나가기 위한 예방책이라고 할 수 있다. 주로 타학교 구성원에 의해 발생하는 본교 관련 성폭행 사건을 가해자 소속 학교에서 알아서(?) 처벌해 주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학칙을 통해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고 가해자 처벌에 있어서 우리의 의견을 주장해야하지 않을까. 학칙을 제정하는 것은 단순히 가해자의 처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성폭력에 반대하는 운동이며 성의 불명등한 현실에서 대학이라는 공간에서부터 성폭력에 관한 논의를 새롭게 시작하려는 것이다. 또한 이는 성폭력을 신체에 대한 자기 결정권(성적 자율권)의 문제로 인식함으로써 현재의 여성 억압적, 남성중심적인 성폭력 지배담론을 해체하고 새로운 여성적 관점에서 여성의 언어로 재구성하려 함이다.

사건 해결 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에서 머무르지 않고 기존 성폭력 담론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학칙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원칙을 정해둘 필요가 있다.

다음은 그 원칙에 대한 간단한 소개이다.

1. 성폭력 개념에서의 원칙

성폭력은

성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성별에 기반한 모든 폭력 행위를 일컫는다.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의 경험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2. 제정과 적용에서의 원칙

성폭력근절을 위한 학칙은

성폭력의 사회성을 견지해야 한다.

피해자의 의사를 최대한으로 담아낼 수 있어야 한다.

모든 공동체 성원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유연해야 한다.

성폭력은 인간이 지니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너무나 일상화되어 버린 사회공존적 폭력이다.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이성으로서의 합리적이고 객관적 판단을 위해, 대학교살판으로서 교육권 보장을 위해 성폭력 근절을 위한 학칙제정을 요구한다.

일상속의 성문화

· 차경현수 ·

성(性)이라는 우리말은 여, 남의 생물학적인 성(sex),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여남의 정체성(gender), 성에 관한 생각, 의미, 그리고 사회적 관행들을 포괄하는 의미의 성(sexuality)으로 구분하여 쓸 수도 있다(조영미, 1999). 이 글에서는 특히 구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괄호 안에 영문을 표기해 두었다.

처음 이 강의를 맡았을 때의 내 생각은 이랬다. 강의와는 상관없이 알아두면 좋을 이론적인 측면을 자료집에 실어두려고 했던 것이다. 이론이라는 것이 그 안에 매몰되어 구체적인 실천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면이 가끔 있기는 해도, 처음 성문화를 접하고 궁금해 하는 사람들에게 요즘의 이론적인 논의들이 어떤 식으로 정리되고 있는지 소개하고 싶었다. 관련 논문들과 자료집-내용은 많이 접쳐있

을-의 홍수 속에서 나는 사실 길을 잃어버렸다. 다루어야 할 것은 무척 많았고 그 많은 것을 단순한 사전 식의 짧은 설명으로만 나열한다는 것은 오히려 처음 접하는 사람들에게 잘못된 생각을 전할 수도 있다. 흔히 사람들이 프로이트가 어떻게, 마르크스가 어떻게 하며 단지 한 문장으로 모든 것을 설명하는 것처럼 그들이 논했던 이야기들을 잘못 이해하는 것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내가 주로 쓰는 언어로, 내가 설명하기 쉬운 방법으로 글을 쓰려고 한다. 얼마 전 내가 속해있는 단체에서 자원활동가를 대상으로 한 모임이 있었다. 메달 다른 주제로 특강 같은 것을 하는데 이번의 주제는 포르노였다. 포르노는 흔히 2가지로 구분하여 부르기도 한다. 비디오 대여점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부인' 시리즈처럼 즐거

리가 있는 예로 영화 등의 소프트코어 포르노, 다양한 섹스 장면만 반복되는 하드코어 포르노가 바로 그것이다. 대부분 여성인 자원활동가들은 기본적인 여성주의적 상단에 대해 공부를 한 사람들이었는데, 이 러저러한 이야기만을 들었을 뿐 실제로 포르노를 접해본 사람들은 거의 없었던 것이다. 그들은 포르노가 정말 무엇인지 알고 싶어 했다. 나는 알음알음으로 테이프 (보통 '아한 영화', '아한 테이프', '빨간 딱지가 붙은 제목 없는 비디오'로 불려지는 포르노는 처음 한국에 유입될 당시 '비디오 영화'라는 메체 형식을 띠고 들어왔다(윤자영, 1998))를 구했고 많은 사람들의 호기심 속에 특강은 진행되었다. 어찌 보면 단순한 가십거리로 지나갈 수 있는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특강을 준비하면서 우리 사회의 성문화를 조금은

체험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 테이프는 내가 주로 교류하는 젊은 여성운동가들 사이에서는 새로운, 신선한 것이었다. 혹시나 하고 나는 20대 초반의 남학생들과의 술자리에서 이 테이프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어 봤는데, 아니나다를까 그들은 이미 몇 년 전에 본 경험이 있었다. 남자친구나 선배를 통해 유입되는 즉시 그들은 포르노를 소비할 수 있었다. 여성은 배제된 공간에서 여성이 주된 주인공인 포르노가 상영되는 것이다. 그들의 여자친구이며, 동생이며, 누이일 여성들 대부분은 처음 포르노를 보는 것이었는데, 시작한 지 20분이 채 되기도 전에 강의실을 나온 사람도 있었다. 몇 년 전에 이화의 여성학 관련 교양 수업시간에도 실제 포르노를 본 적이 있는데 그때는 5분 여만에 나온 학생도 있다고 한다. 남학생들에게는 심심풀이 망풍 같은 오락물인 포르노가 같은 나이 또래의 여학생들에게는 다르게 비추어 진다. '성'이라는 말을 들으면

무엇이 연상되느냐'라고 물었을 때 남학생들은 섹스- '섹스'는 일상용어에서 성행위(sex act)를 뜻한다고 대변되는 성기중심적 성을 연상시키며 페라의 개념을 수용하는 반면 여학생들은 순결에 대해서 고민하며 현실과 자신의 욕구사이에서 갈등한다고 한다(변해정, 1997).

왜 이렇게 다른 것일까? 모든 것이 생물학적인 성(sex)에 의한 것일까? 물론 여성과 남성의 생식기 모양이 다르긴 하다. 그래도 엄연히 같이 존재하는 생식기인데 남자에게만 심심풀이 망풍이 허락될 이유는 안 된다. 임신 때문에? 임신을 하는 것은 여성이지만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 더더욱 같이 봐서 공부를 해야 한다. 단순한 생물학적 성의 차이에 의한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럼 무엇이 문제인 것일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생각해 봐야 하는 문제인 것이다.

한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해 볼 때, 그 사람이 올바른 성에 대한 인식, 태도,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성장하는 데는 어떤 요인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 사회학적 용어로 바꾸어 말한다면 이 과정은 인간이 태어나 그 사회의 문화를 내면화하여 정상적 사회성원이 되어가는 과정, 즉 사회화 과정이고 사회화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회화의 기관은 부모, 또래집단, 학교, 대중매체 등이지만 모두 한국이라는 사회안의 소규모 집단일 뿐이다.

그럼 한국 사회의 성문화란 어떤 것인가. 우리 사회 성문화의 특성은 크게 두 가지를 지적할 수 있다. 첫째는 성의 상품화와 피폐적 성의 범람이고 둘째는 가부장적 성문화이다(지은희, 1996). 성의 상품화를 보여주는 매매춘 종사 여성의 수는 120만명에서 150만명에 이른다고 추정되는데, 그 수는 15-29살 사이의 여성 인구의 약 20%를 차지하는 수이다. (한겨레 21. 불황모르는 공룡산업 한국의 '섹스' 시장, 1994년 4월 7일자) 매매춘업이란 성의 매매가 가능하다는 성의 가치관을 반영한다.

또한 대부분의 종사자들은 여성으로 이러한 사실은 여성에 기대되고 있는 사회적 역할이 남성의 섹스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역할임을 은연중에 사회 구성원들에게 전달하게 된다(김옥순, 1996). 대부분의 포르노 역시 마찬가지로 여성을 성적인 쾌락추구의 도구로 묘사하고 있다. 여성을 단순히 자식을 생산하고 가사 노동을 하는 존재로 바라보는 가부장제 성문화는 더더욱 여성을 도구화한다.

그럼 사회화의 각 기관들은 어떠한가. 먼저 부모. 한국의 부모들은 자녀에 대한 성 교육을 별로 행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자녀에게 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자녀들을 조속한 성행동으로 이끌지 모른다는 염려 때문이다. 그러나 정확한 정보를 제대로 얻지 못한 사람들에게 잘못된 성행동이 나오는 것이 당연한 문제일 수 밖에 없다. 두 번째로래 집단. 96년의 한 조사-한국여성민우회 부설 가족과 성 상담소에서 남녀 중고등학생

을 대상으로 성에 대한 지식을 가장 많이 얻는 곳에대한 조사를 했다. 비록 대학생을 대상으로한 조사는 아니었지만 고등학교 때까지의 문화가 어느 정도는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하여 인용했다. (이들)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가장 중요한 성사회화 집단이 또래 집단이었다. 이들이 전하는 성 지식의 대부분은 음란물이나 잡지, 스포츠신문, 만화, 비디오 등의 매체에 의한 것이었다. 세 번째 학교의 성교육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대충이나마 직접 경험하여 알 것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간다. 네 번째 대중 매체. 가장 영향력 있다는 또래집단의 교과서인 대중 매체는 기존의 사회가 가지고 있는 여성에 대한 생각들을 과장하여 표현하는 이상의 것이 아니다(지은희, 1996).

Sanday(1981)는 186개 부족 사회에 대한 범문화적 연구에서 성문화와 성폭력의 연결성에 대해 설명한 적 있다. 그 연구에서는 강간 성향의 사회(rape prone societies)와 강간이

없는 사회(rape free societies)의 특성을 분류하면서, 성폭력은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 여성의 공적 의사결정권,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으로서의 폭력에 대한 사회적 수용 분위기 등과 관련이 있다고 분석한다. 강간 성향의 사회에서 강간은 여성을 협박하거나 처벌하기 위해 사용되며, 여성은 상대적으로 남성에 비해 사회적 권력과 권위가 없으며 공적 의사 결정에 참여하지 못한다. 남성은 여성에 대한 경멸을 표현하며, 아버지들은 어린이의 육아에 참여하지 않고 남성의 폭력은 찬양되고 보상된다. 반대로 강간이 없는 사회에서는 여성이 모든 사회적 삶에 참여하며 폭력이 별로 없고 인간 간의 관계가 부드럽다. 강간이 없는 사회가 존재한다는 것은 성적 행동을 포함한 인간의 행동이 생물학적 혹은 생리학적으로요소보다는 문화적 측면에서 유형화되고 표현되는 것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그런면에서 여성을 대상화, 도구화하는 우리 사회의 성문화는 그 심각성

이 더 크다고도 할 수 있다.

성해방을 부르짖는 20세기 말, 우리 사회는 혼돈에 빠져 있다. 여성에게 국한되는 순결 이데올로기는 진부한 것이 되었으나 결혼 이후의 순결은 여전히 중요하며, 10대 성관계 비율이 높아지는 것과는 달리 여전히 미성년자는 존재한다(조영미, 1999). 어떤 게 옳은지, 성급한 찬·반론에 휩싸이지 않기를 바란다. 중심이 있다는 것은 중요한 일이지만, 그 중심이 이미 기울어진 중심은 아닌지 한 번씩은 점검을 하기를, 그리고 점검의 가장 중요한 방법은 타인과의 대화와 토론이라는 고래의 기술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다. 단지 음지에서 드러난 매체를 통한 성문화가 아니라, 개개인의 사적인 경험을 대화를 통해 드러내기를 나는 바란다. 다른 사적인 모든 경험과 마찬가지로 성과 관련된 경험이라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나 특히 비밀로 해야 할 무언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참고로 성문화에 대한 중심을 잡는 데 필요하리라 생

각되는 것들, 혹은 내가 이 글을 준비하면서 계속 참자리에 두고 있었던 이론서들을 소개한다. 물론 이 책들은 내 중심에 의해 선택된 것들이고, 이외의 다른 책들이 충분히 많이 존재한다. 성문화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성(sex, gender, sexuality)을 고민한 후에, 혹은 같이 고민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섞어 소개했다. 물론 내용 소개도 내가 이해한 부분 안에서 가능한 것이니 직접 읽고 판단하길 바란다.

21C 여성미디어 운동센터 발족기념 토론회 자료집, (사)한국성폭력상담소, 1998

매체에 나타난 성문화, 미디어와 성폭력의 상관관계 등을 고민하는 데 도움이 될만한 자료지만, 서점에서는 구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새로 쓰는 성 이야기, 또 하나의 문화, 1991

성에 대한 봉건적인 무지, 타자화되고 소외된 성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논설들과 성과

사랑의 신화와 허상을 분석하고 성과 사랑에서 주인 되기를 강조하는 체험수기, 콩트, 영화평 등이 실려 있다고 한다.

새로 쓰는 사랑 이야기, 또 하나의 문화, 1991

역사 속에서 결혼, 사랑, 성이 결부되어 변화해 가는 맥락을 사랑을 둘러싼통념과 우리사회의 결혼문화 등을 통해 비판적으로 살피고 있다고 한다. 논설, 콩트, 수기, 영화평 등 다양한 장르의 글이 실려 있다.

새여성학 강의, 한국여성연구회 지음, 동녘, 1999

기존 '여성학 강의'를 수정, 보완하여 나온 최신 책 중의 하나다. '섹슈얼리티 강의'와는 다른 부분의 사회 문화 전반을 다루고 있는 새내기 용 책이라고 한다.

성의 역사2, 페릭의 활용, 미셀 푸코, 나남

성을 억압하는 기제와 권력의 문제를 고찰했다고 한다. 여성학을 깊게 공부하다보면 한

번은 세미나를 하게 될 책 중의 하나다.

섹슈얼리티강의, (사)한국성폭력상담소 엮음, 동녘, 1999

가장 최근에 나온 여성학 교재 중의 하나다. 한국지형에서의 전반적인 섹슈얼리티 논의에 대하여 문화 각 부분을 점점(?)하는 내용이다. 처음 접하는 사람들이 읽기에 좋을 것 같지만, 사실 그리 쉬운 언어들은 아니다.

섹스북, 이멘트, 박영물 출판사, 1995

저자와 남, 여 두 사람의 대화식으로 성문화를 읽어낸 책으로 아직 우리 나라 부모들이 직접 읽고 같이 공부하기엔 급진적일 듯하다. 이와 비슷한 한국 책으로는 '우리가 성에 대해 알고 싶은 것들, 그러나 포르노에도 하이틴 로맨스에도 나와있지 않은 것'이라는 또하나의 문화에서 나온 책이 있다.

음란물과 청소년의 성의식 및 성폭력 인식의 관련성 여부에

관한 일연구, 한국인행물윤리위원회, 1998

실제 인쇄 음란물을 접해보지 않았을 여러 사람에게 참고가 될 수 있는 좋은자료다. 구할 수 없다는 게 정말 커다란 단점이다.

청소년 성문화를 통해 본 성폭력 실태 및 대책, (사)한국성폭력상담소, 1996

상당통계와 실제 면접을 통해 알아본 청소년 성문화와 청소년 성폭력의 상관관계에 대한 글들이 실려있다. 구하기는 어렵지만, 나름대로 좋은 자료다.

포르노 재언물에 대한 여성의 경험에 대한 연구, 윤자영, 1998, 이화여대 석사학위 논문

포르노에 대한 남녀 인터뷰와 그에 대한 분석이 들어있다. 주로 포르노의 개념과 서구의 포르노 논쟁에 대한 부분을 참조했다. 우

4
페미니즘 문화제
다섯째날

지금부터 여성의 역사를 쓰자
-김활란 이슈를 중심으로-

지금부터 여성의 역사를 쓰자. 김활란 이슈를 중심으로

김활란 상을 제정하겠다는 이화여대 측의 결정 이후, 이화 외부에서만 아니라 이화 내부에서까지 수많은 비난이 쏟아졌다. 우리는 여기서 단순히 김활란 상 제정 찬반 논쟁을 넘어서서 이 논쟁이 이화를 다니는 여성인 우리에게 부여한 혼란과 고민거리에 대해여 진지하게 사고해 보고자 한다.

가부장제 사회에서 민족이나 역사라는 개념은 대체로 남성 주도의 것이었으며 여성은 역사를 평가함에 있어서 주체가 아닌 객체의 자리에 설 수 밖에 없었다. 또한 한국의 특수한 역사적 배경은 획일화된 이분법적 구도 - 친일이나/애국이나, 반공이나/빨갱이나 식의 - 를 벗어난 다양한 담론 형성을 용인하지 않는다.

김활란 상 제정 논쟁에 대해 찬성이나 반대다를 결정하도록 강요하는 현재의 담론을 거부하며, 이화에게, 이화인에게 더없이 부담스러운 과제로 다가온 김활란 논쟁에 대해 좀 더 다양한 담론을 나누어 보고자 한다. 또한 김활란 논쟁을 화두로 다가온 여성의 역사라는 것, 역사의 여성화라는 것에 대해 고민하는 출발점으로 삼고자 한다. 우

인터넷에 올려진 김활란상 논쟁

제목 : 이화여대여 귀뚜라미 먹었는가
분명 '위안' 급이다. 한국을 대표하는 여성지도자로 결코 손색이 없다. 그런데, 김활란 박사에게는 이런 알려진 업적 이외 잘 알려지지 않은 놀라운 '업적'도 있다. 바로 친일매국행각이다.

드디어 본지 뼈다귀 버리는 것이다. 여태 앉아서 차분한 목소리로 지껄이다가, 이 부분에 이르러서는 발악 일어나 게거품 물고 하늘을 향해 올라 뛰어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이화여대여..

이 나라 여성 교육의 산실이라고 자부하는 이화여대여.

그런 역사인식으로 이 나라 교육을 말하는가. 그대들은 들리지 않는가. 역사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자들에게 퍼붓는 역사의 야유가.. 제발 귀뚜라미를 열이라.

제목 : 많은 걸 느낍니다.

나쁜 매국노들 그러나 한국사화에서 모든 권력을 휘두른 그들... 처벌 받아야 합니다.

겨레의 거울 힘내요!!!!

제목 : 많은 것을 느낍니다

소위 지식인이라는 사람이 민족의 이단아를 추종 하려는 계획을 세우다니 나라를 위해 싸우신 조국 선열의 후손들은 가난에 힘겨운데 매국을 위해 앞장섰던 그대들과 후손들은 부정축재한 경제력으로 이사회를 다시 망치려 하는군요. 학교 교육에서는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지금까지 배웠는데 아닌가요. 과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던 상위계층의 교육관계자들은 지금껏 거짓말을 했다는 얘긴가요. 아니면 대가리는 좋아 높은자리 앉았는데 인간이 멀 된 어설픈 사람인가요. 망언을 하는 자는 이 지구를 떠나야해.

제목 : 이대인들... 여전히 꿈에서 못 깬다

김활란의 장학금을 받고 김활란의 이름을 들으며 살아가려 하지 말고 부끄러운줄을 알아라. 너희 잘못이 아니다. 그러나 너희는 잘못하고 있다. 침묵으로 일관하는 자세가 너희는 잘못하고 있다. 정신차려라 이대인이여..

지난 몇 달 동안 김활란 상을 둘러싸고 등장한 여러 논의들은 여성학도들에게 많은 고통과 반감을 안겨주면서도 한국의 근대 역사, 식민지 역사, 그리고 여성의 역사를 기술하고 연구한다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게 한 계기였다. 많은 경우 역사에 대한 논의는 미래의 방향을 잡기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역사를 기술하거나 논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연구자들이 갖는 현재의 시점에서 문제제기될 수 밖에 없고, 이런 의미에서 역사에 대한 담론은 역사적 경험을 위치지우는 담론들의 경험의 장이 될 수 밖에 없다.

최근 우리 사회는 세계화와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지표들의 정착을 외치면서 전지구적 미래 질

고, 우리 사회를 설명하는 거대 역사담론의 현지평을 반영하는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것이다. 미래를 향한 지도자로서의 김활란, 우익 자유민주주의자로서의 김활란, 식민지의 협력자로서의 김활란이라는 대중적인 언설들은 우리 사회의 정치적·도덕적 정체성을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담론들과 맞물려 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의 역사를 설명하는 거대 공식 담론인 일제의 식민지, 미국과 밀접한 관련 속에서 형성되고 유지되어 온 남한의 자유민주주의의 체제, 남성세계에서 여성이 갖는 사회적·정치적 '성공'과 같은 것들이 얼마나 우리 사회에서 정치적으로 예민하고, 이데올로기적으로 봉합된 문제인가를 드러내준다. 더욱이 그것이 김활란이라는 여성과 관련되면서 이제까지

혹은 식민지 시대의 인물평가의 올바름이란 제국에 대항하는 민족의식이나 민족저항의 정도, 혹은 식민제국에 의한 희생의 정도로 설명되어 왔다. 식민지 시대에 우리 사회 내부에서 어떠한 사회적 변화 혹은 이동이 일어났었는가 하는 것은 최근 식민지 근대화론에 대한 비판과 함께 역사적 의미를 부여받지 못하거나, 논의 자체가 이데올로기적으로 봉쇄되는 경우가 많았다.

식민지 역사 연구에 대한 새로운 방법론과 해석의 정치적 요구

그러나 이번에 새로운 것은 여기에 김활란이 갖는 여성이라는 성별의 조건을 역사화시키는

선교사들과의 관계에서 부딪치는 민족적 차이, 억압의 경험, 세계의 다른 지역과 미국에 대한 경험, 다른 여성들과의 관계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면서 김활란에 대한 더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지만, 동시에 이는 식민지 역사연구에 대한 새로운 방법론과 해석의 정치학을 요구한다. 다시 말해서 약 40여년 간을 식민지 치하에서 살았던 다양한 사람들의 구체적인 삶에 대한 새로운 자료와 그들이 경험했던 다양한 방식의 억압 경험을 재현할 수 있는 상상력을 역사 연구자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역사화된 여성으로서의 김활란을 문제화하는 언설은 김활란을 설명하는 공식자료가 바로 한국의 역사를 기술하는 방식으로 배열되어 있고, 그리고 그녀의 삶을 위

지금부터 여성의 역사를 쓰자 ①

한국의 근대 여성사를 공부하자.

김활란 상 논쟁이 주는 의의

글 김은실 여성학과 교수

서로의 편입을 주장하는 정치적 담론이 강력하게 홍보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매일의 일상에는 냉전체제의 유산인 분단의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군위안부와 같은 식민지시대의 문제들로부터 해방되고 있지 못하다.

김활란에 대한 대중적인 언설들은 우리 사회의 정치적, 도덕적 정체성을 규정하는 담론들과 맞물려 있어 김활란 상을 둘러싼 논의는 이러한 우리 사회의 문제를 그대로 드러내는 사건이

우리 사회에서 유래를 찾을 수 없는 감정적인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민족이라는 단일한 주체에 의한 역사기술의 한계

이제까지 한국의 근대 식민지 역사를 기술하는 가장 중요한 자기인식 방식은 민족이라는 단일한 주체였다. 그래서 식민지 시대의 역사기술

언설과, 여성이 역사적인 인물이 된다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등장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언설의 등장은 이제까지 식민지 시대를 설명하는 단일 주체인 민족 내부의 차이에 대한 문제제기이고, 차이에 따른 식민지 경험의 차별적인 평가를 요구한다는 것이다. 전통적인 사회에서의 반상(班常)과 남녀의 사회관계에 대한 봉건성의 경험, 서구/기독교 사상이 갖는 보편적 가치에 대한 근대 교육 경험, 일본 그리고 미국/

어내고 평가하는 방식 역시 한국의 공식적 거대 역사담론에 준거되어 있다는 것 또한 문제화한다.

식민지적 근대 역사 속에서 여성의 삶과 경험을 맥락화시키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 환기

최근 식민지를 경험한 국가들의 여성학자들

이번에 새로운 것은 김활란이 갖는 여성이라는 성별의 조건을 역사화시키는 언설과 여성이 역사적인 인물이 된다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등장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언설의 등장은 이제까지 식민지 시대를 설명하는 단일 주체인 민족 내부의 차이에 대한 문제제기이고, 차이에 따른 식민지 경험의 차별적인 평가를 요구한다는 것이다.

은 억압, 자기정체성(인식), 주체성이 조직되는 데 민족이라는 조건만이 아니라 성별, 계급, 종교 등이 상호적으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식민주의와 민족주의의 맥락내에서 검토하면서 여성(혹은 다른 타자)의 역사가 쓰여지는 방식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다.

여성과 역사를 연구하는 여성사가들은 여성에 대한 역사적 자료의 부족만이 문제가 아니라, 여성들의 삶이나 경험을 읽어낼 수 있는 여성주의적인 시각의 부재가 여성사를 쓰는 어려움이라고 말한다. 사회적이거나 정치적인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기존의 시각에 익숙한 많은 학자들은 여성들에 대한 새로운 자료나 역사적 경험이 드러나도 그것을 기존의 틀 속에서 해석하

강점기를 살고, 어떻게 민족과 자신들을 관련시켰는가로 확장

성별이 갖는 역사적 차이의 관점에서 한국의 근대, 식민지 시대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는 식민지 시대를 산 여성과 남성뿐만 아니라 각기 다른 계층과 집단의 사람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일제 강점기를 살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민족이라는 것과 자신들을 관련시켰는가라는 새로운 질문을 또한 제기한다.

일제와 대립된 개념으로서의 식민지 조선 민족의 내부는 어떻게 구성되었고, 그들은 민족·반상구조·계급·가족·성별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어떠한 삶의 전략들을 사용했는가. 그러한 삶이 갖는 정치적·사회적·역사적 의미는

여성과 역사를 연구하는 여성사가들은 여성에 대한 역사적 자료의 부족만이 문제가 아니라, 여성들의 삶이나 경험들을 읽어낼 수 있는 여성주의적인 시각의 부재가 여성사를 쓰는 어려움이라고 말한다.

거나, 비가시화시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김활란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정점화되는 이번의 사건은 역사적 존재로 여성을 조명한다는 것, 특히 식민지적 근대 역사 속에서 여성의 삶과 경험을 맥락화시킨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의식을 환기시키고 있다.

다른 계층과 집단의 사람들이 어떻게 일제

어떻게 논해져야 하는가라는 새로운 질문들을 계속적으로 제기하게 한다.

그리고 기존의 가족이나 사회관계를 떠나 여성만이 모일 수 있는 여성 공간으로서의 여성교육기관의 등장, 공적 영역에서 여성 문화가 형성되는 여성 기숙사, 여성 단체, 그리고 다양한 여성들간의 관계, 새로운 가치와 규범을 갖는 신여성/여성 지식인들의 배출, 사회적 역할과 일제의 식민지 지배가 어떤 식으로 관련되어 이들을 식

민지 여성으로 위치시키고 있었고, 여성들의 삶은 다른 여성에게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가라는 물음을 묻게 된다.

제국주의의 권력 행사는 성별이나 계급 등에 따라 차별적으로 작동

제국주의의 권력이 행사되기 위해서는 식민 지배자와 피지배자가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법주는 고정되어 있다기 보다는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다양한 감시와 실천을 통해 성별이나 계급 등에 따라 차별적으로 작동한다. 김활란을 여성주의적으로 본다는 것은 김활란이 여자가기 때문이 아니라 민족적인 규제 밖에 있었다거나, 저항적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김활란이

연구하면서, 또 식민지 시대를 같이 살았던 김활란의 지인들을 인터뷰하면서 사람들의 국가나 민족, 계급 혹은 다른 민족의 권력을 어떻게 경험할까? 그리고 이러한 규정적인 사회관계가 행사하는 권력을 경험하는 방식은 어떤가? 그러한 권력들은 한 개인의 일생을 통해 동질적이고 단일하게 경험되는 것일까? 특정한 시대를 살았던 개인들이 겪는 경험과 그들이 만들어낸 역사라는 것과 역사기술자/연구자들의 입장과는 어떠한 관련이 있는 것일까? 하는 생각들을 한다.

미래가 불투명할 때에는 역사를 공부하라는 말이 있듯이, 현재 무엇이 옳은지 판단이 서지 않거나 잘 모를 때에는 역사를 구체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역사는 그냥

김활란이나 신여성, 혹은 여성 지식인들이 식민지 시대를 경험했고 저항했던 방식은 봉건적 사회관계와 일제의 식민지, 그리고 서구/기독교의 근대적 가치라는 맥락 속에서 그녀가 자신을 조선인/여성으로 규정하고 또한 규정당하는 구체적인 방식들과 맞물려 있다는 것이 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나 신여성, 혹은 여성 지식인들이 식민지 시대를 경험했고 저항했던 방식은 봉건적 사회관계와 일제의 식민지, 그리고 서구/기독교의 근대적 가치라는 맥락 속에서 그녀가 자신을 조선인/여성으로 규정하고 또한 규정당하는 구체적인 방식들과 맞물려 있다는 것이 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끊임없이 해석적 개입을 요구하는 역사쓰기 과정

최근 4·3을 겪었던 여성과 남성의 생애사를

거기에 있는 자료가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해석적인 개입을 요구하는 역사쓰기 과정을 의미한다. 우

왜 김활란이 문제적인가?

* 신장희진 본고 여성학과 석사과정

(이 글은 김활란 박사 탄생 100주년 기념 전시회 '대화'의 카탈로그에 실렸던 글을 수정, 요약한 것입니다.)

당신은 김활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화인과 페미니스트에게 김활란 논쟁은 고통스럽다. 이들은 김활란에 대한 입장 표명을 끊임없이 요청받는다. 페미니스트에게 김활란은 '말하고 싶지 않음, 관심 없음, 모름, 뜨거운 감자'다. 반대로 남성들은 '김활란=친일파'라는 확신에 차 있다. 김활란 논쟁이 고통스러운 것(굴치 아픈 것)은 이 사건이 새로운 사유 방식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문제를 '여성의 눈으로' 보고자 하지만, 그럴 수 있는 사고 방식은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다. 여성을 주체로 인정하지 않는 사회에서 여성이 자신의 관점으로 세계를 해석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친일 논쟁을 넘어, 여성의 눈으로 김활란을 보는 작업은 짙은 동굴 속을 헤매는 것 같다.

그의 생애는 한국사회 여성문제에 대한 수많은 논쟁 주제를 암시한다. 김활란이라는 인물 자체, 그의 모순성은 철저히 시대적 산물이다. 그는 위대해지도록 '조건 지워진' 사람이다. 김활란이 '출세'한 여성이어서가 아니라 그 인생의 '시대성' 때문에 그는 역사적 인물이다.

김활란 논쟁은 우리사회가 흑백 논리에 얼마나 익숙한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김활란 논쟁은 옹호, 비난의 문제가 아니다. 여성에게도 사회적 성원권(成員權)을 주느냐, 여성의 삶과 경험도 역사의 구성 요소가 될 수 있는지의 문제인 것이다. 사람들은 이 문제가 친일파를 청산하려는 '정의'로운 세력과 그렇지 않은 세력간의 다툼, 혹은 민주세력과 (의식없는 부르조아)여성들간의 갈등으로 본다. 김활란 논쟁의 기본 성격은 무엇인가? 이 사건의 본질은 여성과 남성간의 권력관계이다. 이 권력관계에서 여성들은 전형적인 남성적 사유 방식인 흑백 논리와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다.

민족(민중)이나, 여성이나?는 질문을 질문한다

우리사회에서 여성운동을 효과적으로 익히는 인식 중의 하나는 '민족(민중)문제가 더 중요하나 여성문제가 더 중요하냐'는 식의 말하기이다. 이런 생각에 익숙한 사람들은 여성문제만 나오면 '노동자 계급 남성과 중산층 여성 중에 누가 더 억압받느냐'고 물기를 좋아한다. 그래서 여성운동은 언제나 '중산층, 지식인 중심'이라는 집두어를 갖게 된다.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

다. 민족(민중)이나 여성이나는 질문은 이미 '정답'을 전제한다. 이 사고 방식의 전제는 위계화된 이분법이다. 둘 중의 하나만 옳고, 다른 하나는 틀렸거나 사소한 문제다. 흑백논리에서는 둘 중의 하나만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찬성도 반대도 아닌 사람, 찬성/반대의 기준 자체를 문제시하는 사람은 이 논쟁에서 모두 친일파로 매도된다.

민족(민중)이나 여성이나는 질문에 중요한 전제가 또 있다. 민족과 민중은 남자라는 것이다. 유관순 '누나'라는 호칭은 민족 주체가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여성은 민족과 민중에 포함되지 않는다. 만일 여성도 민족의 성원이고, 민중에 여성도 있다면 이러한 질문은 논리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 여성 자체가 성 계급(sex class)으로서 민중인데, 어떻게 '성 모순이나, 계급 모순이나'는 질문이 성립할 수 있는가? 여성과 민중이 대립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여성이 권력을 가진 남자의 아내, 어머니, 딸로서만 설명되기 때문이다. 우리사회에서 남성을 통하지 않고도 자원에 접근할 수 있고, 남성 없이도 자신의 지위가 설명되는 여성이 얼마나 될까? 여성 자체가 바로 무산자(프롤레타리아트)인 것이다.

왜, 누구에게 김활란이 거부되는가?

김활란이 '문제적'인 것은 그가 남성 지식인도 아니고, 여성 민중도 아니기 때문이다. '여성 지식인' 김활란은 여러모로 불편하고 웬지 알미운(?) 존재다. 남성 지식인은 그들을 숭배하는 지지 집단을 갖는다. 가부장제 사회에서 남성으로부터 세계를 인식하는 방법을 배운 대부분의 여성들 역시 그들의 주요 지지층이다. 여성이 모든 자원과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위대한 남성'을 버리는 것은 쉽지 않다. 이제까지 '위대한 남성'들은 여성의 경험을 대신 해석해 주었다. 여성은 자신의 언어가 없기 때문에 자신의 경험마저도 소유하지 못한다. 이런 상황에서 여성 지식인의 등장은 남성에게는 물론 여성에게도 두려운 일이다. 여성 민중이 지지받을 때는 그들의 주체성이 강조될 때가 아니라, 희생자로서 동정의 대상이 되거나 식민지 역사에 대한 수치심을 자극할 때뿐이다. 김활란의 삶에는 대다수 여자들의 인생인 '남자를 위한 희생'이 없다. 김활란은 남성이 여성에게 기대하는 노스탤지어, 한 곳에 머물러 평생 남자를 기다리는 정박(淨泊)된 이미지도 없고 구차스러운, 동정심을 유발하지도 않는다. 이제까지 우리에게 익숙한 여성에 관한 역사는 '희생사'였다. 여성은 굴욕과 비참함의 상징이었다. 그러나 김활란은 승리의 삶을 살았다. 그 시절에 여성으로서 '한국 최초' 타이틀을 많이 가져서가 아니라, 자신이 원했던 대로 자기 의지대로 살았다는 의미에서 승리의 삶이었다. 그는 시대에 기죽지도 않았고, 조건에 굴복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그 길에 자기 혼자만이 아니라 다른 여성들을 동참시키기 위해 일생을 바쳤다. 그는 남성의 편의대로 살지 않았다. 그는 '여자의 길'을 거부했다. 물론 그가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소명과 이화라는 여성공동체의 절대적인 보살핌과 지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짓눌리지도 피해자적 이지도 않은 김활란의 삶은 여성에게는 당혹함과 어색함을, 남성에게는 거부감과 불편함을 준다.

김활란을 부정하는 이화 밖의 어른이 산일 문제라면, 학교 내부에서 김활란을 비난하는 논리는 그가 특권층 여성이었다는 것이다. 이들은 '엘리트 여성을 위해 민중을 억압했다'는 이유로 김활란을 거부한다. 이 말은 1886년 이화의 첫 학생이 누구였는가만 알아도 반박할 수 있는 어이 없는 논리다. 나는 이들이 여성이면서도 남성적 시선으로 세계를 본다는 점, 자신이 몸담고 있는 여성공동체를 타자화(他者化)하는 사고 방식에 주목한다. 남성의 시각에서 여성을 비판하는 것을 우리는 '여성들간의 차이'라고 하지 않는다. 이화인들이 다양한 여성주의로 서로 논쟁하는 것과, 이화인이 맺는 남성의 사회적 지위(민중과 결혼했나 상류층과 결혼했나)와 그 남자의 대리인으로 논쟁하는 것은 전혀 다른 수준의 얘기다.

몇 해전 통산에 열 학교 남학생들이 "이대에도 공대(工大)가 있구나, 자선 낭비다. 나네 내가 다 딱박어 뺐는데 밋도 없는 것들이 공학 공부까지 하나..."는 글을 올린 적이 있다. 이들은 여자 대학을 지식인 집단으로 보지 않는다. 여자가 배우려면 남자의 말을 알아들을 정도면 된다는 것을 성적 수치심을 동원하여 역설(?)하고 있다. 김활란 시대나 지금이나, 우리는 '여자들도' 배우고 가르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할 판이다. 우리가 진정 부정해야 할 대상은 김활란같은 여성 지식인이 아니라, 여성은 엘리트가 될 수 없다고 믿는 세력, 여자 대학을 고등 교육기관으로 인정하지 않는 세력이다.

김활란, 이화의 담장을 넘지 말 것

그러나 신사임당을 조선시대 지배 계층이었다는 이유로 비난하는 사람은 없다. 여성이 상류층, 매국노였어도 그 여성이 남성에게 순종하는 현모양처였다면 그래서 남성 지배 질서를 유지하는데 지장을 주지 않았다면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민중을 수탈하고 외세에 아부했던 지배 계급 남성들의 뒷바라지에 충실했던 여성들은 지배층 남성에게 의해서도, 운동권 남성에게 의해서도 별다른 혐오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남성들은 사임당의 여성으로서의 고뇌와 좌절에는 아랑곳없이 그를 착한 여자로 '만들고' 좋아한다. 가부장제는 사임당의 인생에서 그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만을 뽑아, 그를 '진정한' 여성의 사표(師表)로 지정한다. 사임당은 '여자도 사람이다. 남자와 같다'라고 주장하지도 않았고 여성들을 적극적으로 조직한 지도자도 아니었기 때문에 남성의 자아(ego)를 위협하지 않는다. 사실, 남편 없이도 사회적 지위를 가질 수 있는 이화인은 극소수의 선각자들뿐이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김활란이다.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여성에 대한 가부장제 사회의 처벌은 오랜 역사를 갖는다. 노처녀를 일컫는 영어의 spinster는 원래 베 짜는 여성이라는 뜻으로, 노동하는 여성에 대한 폄하의 의미를 담고 있다. 이 문제가 바로 김활란이 친일 행위 알고도 그토록 지탄받는 이유다.

여성이 지식인이 된다는 것, 자신의 경험에 언어를 부여한다는 것의 의미와 호제는 무엇일까? 어떤 의미에서 여성 교육의 의미를 먼저 알아차린 것은 여성들이 아니라 남성들이었다. 오랜 세월 동안 언어와 지식 생산 체계를 독점해왔던 남성들에게 여성 지식인의 등장은 두려운 일이다. 그 두려움은 혈

오와 무시로 드러난다. 지금 여성들은 김활란을 매개로 그간 남성만이 할 수 있다고 여겨져왔던 역사에 대한 '평가, 선별, 정리, 해석, 기록의 권위'에 도전하고 있다.

기성 세대의 김활란에 대한 평가는 남녀를 떠나서 젊은 세대는 보다 우호적이다. 이는 80년대 이후 김활란의 친일 행위가 본격적으로 드러난 점에도 이유가 있지만 더욱 중요한 사실은 급격하게 증가한 여성의 사회 진출 때문이다. 공적 영역에 진출한 여성이 거의 없고, 중요한 위치에 여성들이 거의 없을 때 한 투명 튀어난 여성의 활약은 남성 중심사회를 크게 위협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토큰리즘(tokenism, 구색 맞추기)은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광범위한 영역에서 가시화되면, 심각한 문제가 되기 시작한다. 여성들이 중요한 사회 '세력'으로 등장하고 적극적으로 자기 목소리를 낼 때 김활란의 의미와, 그렇지 않을 때 김활란의 의미는 완전히 다르다. 즉 어떤 상황에서 누구에 의해 김활란이 여성 지도자로 부각되는지의 문제는, 권력 관계가 첨예하게 부딪히는 정치학의 현장이 된다.

또한 남성들의 김활란 비판은, '여성' 김활란의 의미가 이화라는 일개 학원에 그치지 않고 이화의 담장을 넘어 '사회화'되는 것, 사회적 의미를 획득하는 것에 대한 거부이다. 여성은 여성들만의 인물은 될 수 있을지언정(그것도 남성들로서는 마음에 들지 않지만), 여성이 전체 인간을 대표하는 사회적 인물이 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사회의 '김활란 죽이기'는, 여성이 여성을 여성의 시각에서 평가하겠다는 시도에 대한 남성 중심사회의 처벌이다. 역사적 인물에 대한 인증권(認證權)을 감히 여성도 갖겠다고 나섰는데, 이 어찌 간단한 문제겠는가?

여성의 경험은 역사에 반영되었는가

여성과 남성은 김활란을 다르게 경험한다. 김활란에 대해서 여성의 경험을 말하는 것, 여성의 이해(利害)와 요구를 드러내는 것은 곧바로 '친일을 옹호하는 것, 객관적이지 않은 것, 개인의 기억'으로 해석된다. '불변의 진리'로서 김활란의 친일 행적은 이에 매우 효과적으로 동원된다. 친일의 역사가 강력히 각인되면서 여성의 역사는 완전히 지워진다. 친일이라는 잣대 외에는 어떠한 다른 시각도 '용서'되지 않는다. 그래서 김활란이 '여성'이라는 사실이 여성들에게는 다른 친일파와 구별짓게 하는 중요한 변별 요소가 되지만, 남성들에게는 김활란이 여성이라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아니 오히려 여성이기 때문에 더욱 비판하기 쉽다. 김활란이 여성, 교육, 기독교계에 헌신한 점이나 일본으로 유출된 문화재를 열심히 모아 박물관에 기증한 것, 친일 행위에 대한 죄책감으로 고통받은 사실 등은 다른 친일파도 그만한 업적을 남겼다는 식으로 해석된다. 이들에게 여성 억압은 당연하거나 '사소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억압받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고통 중의 하나는 자신의 모델이 될 만한 사람 혹은 대안적인 세계를 상상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역사상 수많은 위대한 아버지의 가르침을 사회적 지지 속에 체계적으로 전수받은 남성들과, 여성의 역사가 있다는 것 자체를 부정당한 여성들에게 김활란과 이완용이 어

떻게 같은 의미일 수 있겠는가? 여성은 결혼하면 남성을 위해 살아야 했고, 결혼하지 않고 자신의 업적을 이룬 여성은 자손을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역사는 후대로 이어지지 않았다. 남성들은 이런 모순을 경험하지 않는다.

신라시대까지만 해도 모계 상속이 있었다는 것, 가락국의 시조인 수로왕의 자손 가운데 절반이 어머니의 성(姓)을 따랐다는 것, 허난설헌이 당시 일본과 중국의 독자들이 열광한 국제적 베스트 셀러 시인이었다는 것,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사실은 부인의 연구 업적이었다는 것, 실존주의의 타자성(他者性) 개념은 사르트르가 아니라 보바르의 아이디어였다는 것, 이화가 남녀공학을 통틀어 한국 최초의 종합대학, 최고(最古)의 대학이라는 사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이 전수되지 않도록, 여성 스스로가 여성의 역사를 부정하도록 하는 세월을 살아왔다. 여성의 역사는 은폐와 망각과 소실(消失)과 침묵의 역사였다.

사회 각 분야의 '여성 1호'로 진출한 사람들에게 김활란은 너무나 소중한 인물이었다. 김활란은 당시 여성들에게 꿈꿀 만한 모델, 살아있는 미래였다. 김활란은 그들이 남성 중심사회를 '견디게' 하는 힘이었다. 개인의 성별은 한 인간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다. 남성들은 '여자도 신념과 건강만 있다면 무슨 일이든 성취할 수 있다'는 김활란의 메시지를 여성과 똑같은 심정으로 이해할 수 없다. 그때까지는 특권층 여성조차도 이러한 가르침을 받아본 적이 없다. 계급을 초월하여 여성이 배운다, 성취한다는 것은 개인의 죄악을 넘어 사회악이었으므로 누구도 여성을 그렇게 독려하지 않았다.

언제 전일 행적을 한 사람의 호, 이름을 딴 기념 사업들은 상당히 많다. 팔봉비평문학상, 동인문학상, 공초문학상, 월탄문학상, 노산문학상, 육당시조문학상, 소천비평문학상, 조연현문학상, 난파음악상, 동광연극상, 용재상, 인촌상... 물론 민중운동의 성장이라는 시대 상황의 변화를 감안해야겠지만 어떤 경우도 김활란만큼 부정시 된 인물은 없었다. 식민지 지배와 가부장제, 과연 누구의 관점에서 무엇이 더 억압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어떤 남성의 위대한 업적이 그가 여성을 억압하고 착취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모조리 부정되는 경우를 우리는 본 적이 있는가? 그런 경우는 역사상 단 한번도 없었다.

김활란은 식민지 체제, 독재 정권에는 협력했지만 가부장제에는 적극적으로 저항한 사람이다. 김활란은 그 시대 가장 강력한 터부에 도전했다는 의미에서 '혁명가'였다. 왜 가부장제에 저항한 사람은 훌륭한 역사적 인물이 되지 못하는가? 김활란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여성들이 모두 김활란처럼 반공주의자는 아니다. 김활란의 인생은 다양한 여성주의적 가치관의 등장에 따라 후대의 페미니스트들과 갈등할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 여성들은 시대사적 맥락에서 그녀를 여성사의 중요한 인물로 위치시키고자 한다. 나는 민족 모순과 계급 모순 등 다른 사회적 억압을 부정하지 않으며, 어려운 여건에서 투쟁하고 있는 사회운동가들을 존경한다.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보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외된 독립 투사의 자녀들이 많고, '매국 지사들이 멸시받고 친일 매국자가 추앙받는 사회'이다. 그것 역시 분명하고 중요한 부정의(不正義)이다. 그러나 김활란의 친일 행적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여성문제를 아예 언급하지 않거나 무시한다. 이 점이 바로 '새로운' 사유와 그렇지 않은 사고 방식의 차이이다.

여성의 눈으로 역사 만들기

가부장제 사회는 여성은 '변개' 남성보다 업등하기 때문에 역사상 뛰어난 여성이 없다고 가르쳐왔다.

여성이 열등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생물학적으로 증명(?)하여 그것이 마치 자연과학적 사실인양 '객관화, 과학화' 시켜왔다. 여성주의자들은 이에 대항하기 위해, 위대한 여성을 힘들게 발굴해서 내세운다. 그러면 또 다른 방식의 남성 중심주의(대표적으로 앞시즘)가 바탕을 이어받아 이번에는 그 여성이 특권층인 것을 문제삼는다. 여성이 위대해질 수 없는 이유는 이렇게 다양하다. 이래도 안되고 저래도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뛰어난 여성 인물이 대부분 그 시대 특권층이었다는 사실 자체가 여성이 얼마나 억압받았는가를 증명한다(그러나 김활란은 특권 계급 출신도 아니었다). 남성은 하층민일지라도 역사적 인물이 될 수 있었지만, 교육 혜택이나 공적 영역에 나올 수 있었던 여성은 오랫동안 매우 극소수였기 때문이다.

나는 김활란이 일제시대 징병제를 옹호하고 동원 연설을 했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으며, 그의 친일 행위가 다른 업적으로 용서되거나 상쇄될 수 있는 '작은 오점'이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친일 행위와 여성주의적으로 평가되는 업적은 다른 차원, 다른 패러다임의 문제다. A라는 문제가 B라는 문제로 환원, 상쇄될 수 있다는 논리는 전부나, 전무나(all or nothing)의 양자 택일 사고 방식에서 나온다. 이렇게 되면 김활란 논쟁을 놓고 우리사회의 담론 유통 방식을 성찰하거나 새로운 사유 방식을 고민할 여지가 없어진다.

한편, 여성들이 김활란을 비판하는 것과 남성들이 비판하는 것은 다르다고 생각한다. 남성들의 김활란 비판은 여성 비하가 혼재되어 있다. 김활란의 친일을 소리 높여 비난하면서 이화를 가르치려는 대다수 남성들은 매매춘과 아내구타, 강간이 일상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그 개인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남성적 권력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다. 여성들은 김활란의 친일 행적을 비판하는 동시에, 한국 사회의 가부장제에 저항한다. 여성들은 우리 사회의 정의를 위해 친일 청산을 바라지만 동시에 친일을 청산하는 작업이 남성들에 의한 역사 독점화, 역사 공식화로 이어지는 것에 반대한다.

페미니즘 문화제.

자세히 들여다보기.

일주일 간

페미니즘 문화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는지 궁금하시나요?
그럼, 지금부터 하루, 하루를 살펴볼까요?

첫째날 3월 29일 (월요일) 늦은 5시 이화광장

개막제

여성이기에 불편하고 답답했던 일상들! 함께 벗어나고 신나게 놀아보자구요! 즐겁게 웃고 비트는 동안 자유로운 '여성'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요? 개막제는 모두의 억압스런 일상을 벗어던지고, 여성주의의 시작을 선포하는 날입니다.

울동이들의 멋진 율동, 여성에 대한 억압적인 시선에 대한 퍼포먼스, 여성 락밴드 <락스타>와 <무슨 연구소>의 멋진 공연, 여성인 '나'의 소망적기, 액맥이의 신나는 풍물공연 등 많은 프로그램들이 이화인들을 기다립니다.

부대행사인 마녀판 사진 찍기, 페이스 페인팅, 뱃지 판매는 3시부터 진행됩니다.

둘째날 3월 30일 (화요일) 늦은 6시 학생문화관 소극장

너, 졸업하면 뭐 할거니?

-나, 여성, 일. 그 험난한 삼각관계 그려보기

슬라이드 상영+강연(박홍주, 시립대 여성학 강사)+이야기

셋째날 3월 31일 (수요일) 늦은 6시 기성관 319호

또 다른 나의 삶-기지촌 여성

기지촌 여성의 삶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이방의 여인들> 상영+강연(김현선, 새움터 대표 + 허브 판매

넷째날 4월 1일 (목요일) 늦은 6시 학생문화관 소극장

성폭력 안전지대는 없다.

인권영화 <전투지대>, 이대 비디오 (이대를 제목으로 한 포르노), 고대생 집단 성폭력 비디오 상영+강연(차김현수, 성폭력 상담소 간사)+토론

다섯째날 4월 2일 (금요일) 늦은 6시 학생문화관 소극장

지금부터 여성의 역사를 쓰자.

-김활란 이슈를 중심으로

강연(김은실, 여성학과 교수)+토론

심상 거리전(문화제 기간 동안)

당신의 하루는 어떻습니까?-성폭력 공화국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밤에 잠들 때까지 우리가 경험하는 수많은 성폭력. 그 일상 속의 성폭력을 한 곳에 모아보았다. 그 때의 응집된 분노들로 이젠 해방을 꿈꿀 시간!

장소 : 학관 앞 숲

여성노동, 다시 생각해보기-당신은 아직도 꿈꾸고 계십니까?

여성과 일에 관한 어렵고 풀기 힘든 고민들.

만화, 여성노동자들의 현실을 담은 사례, 백지 대자보 등을 통해 함께 고민해 봅시다!

장소: 휴웃길에서 학생문화관 쪽 숲

여성위원회는요...

사회에서 여성이기 때문에 감수해야 하는 불편함들, 그리고 그 속에 숨어있는 불합리한 가부장제의 논리들을 거부하는 곳입니다. 우리를 불편하고 억압스럽게 하는 일상들을 거부하고 비틀며,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위로하는 곳이지요. 물론 앉아서 거부한다고 외치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부장제의 불합리한 논리들에 대응하여 지속적인 활동을 펼쳐나가며 여성주의 담론 생성을 고민하는 곳입니다. 페미니즘 문화제, 고대생 집단 성폭력 사건에 대한 대응 활동, 여성주의 매체지 발간, 학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학칙 제정 운동, 사회에서 비가시화 되는 여성노동 문제에 대한 고민과 활동, 그리고 기지촌 문제, 정신대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활동들..... 그 속에서 우리는 작지만 소중한 가능성들을 찾아냅니다. 남성에 의해 규정된 시선이 아닌 '여성'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봄에 대한 가능성, 또한 '여성'임이 우리에게 차별과 불편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고 행복할 수 있게 하는 세상에 대한 가능성입니다.

그러한 가능성을 믿으며, 이를 만들어가는 여성위원회에서 함께 고민하고 싶다면 지금 당장 달려오십시오. 지구상에서 여성임이 행복하고 즐거울 수 있는 몇 안되는 공간 중에 하나, 이 화여성위원회는 언제나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문의 : 학생문화관 218호 여성위원회 (3277-4708)

문화제를 함께하는 여.성.밴.드.

무슨연구소는 나우누리 여성모임 miz에서 만난 5명의 여성으로 이루어진 밴드입니다. 결성된지 한달만에 미즈4주년행사에 공연을 하는 등 기본기와 용기(^^)가 탄탄하게 갖추어진 밴드, 99년 2월에 미즈네 밴드에서 무슨 연구소로 밴드명을 바꾸고, 여성단체연합에서 개최한 여성문화제공모전에 출전하여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수상곡명은 '진공청소기'. 성감별을 통해 죽어가는 여아살해의 현실을 노래한 곡입니다. 무슨 연구소는 여성주의를 하는 밴드라기 보다는, 음악속에서 자연스럽게 여성의 현실을 노래하려고 합니다. 남성들과 함께 할 때보다 좀 더 자유롭고 편안하게 음악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여성밴드만의 장점일 것입니다. 무슨 연구소의 연구원들을 소개하자면, 우선 소장(리더) jiang21(25), 보컬과 키보드를 맡고 있습니다. 드럼에는 구름로안(20), 현재 밴드 '수선화'의 드러머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신촌과 용대사이의 '코다'에 오면 구름로안의 드럼연주를 들을 수 있다고.) 베이스는 깃털소녀(24), 기타에는 김지혜(24), 키보드는 pig1004(22)입니다. 아직 특별히 추구하는 음악장르는 없는 상태. 각자의 개성을 존중하면서 가지고 있는 재능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릴수 있는 음악을 하기 위해서는 좀더 시간을 두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이화여대 페미니즘 개막제에서 좋은 공연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슨연구소무슨연구소무슨연구소

하이텔, 나우누리, 유니텔, 천리안 등을 비롯한 상용통신망을 비롯한 사이버 공간에서 여성은 기술적으로 배제되거나 남성들의 폭력적인 통신문화에 대항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여성들이 사이버 공간을 구축할 수 있는 기술력이 다소 미진하고 또한, 기존에 만들어진 남성주의적인 사이버 문화에 저항할 수 있는 적극적인 여성주의 담론을 사이버 공간 안에서 창출하지 못함을 그 원인으로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앞으로도 사이버공간에서 충분한 기술력과 여성주의 문화를 창출하지 못하면 여성들은 현실세계와 비슷한 혹은 익명성에 의해 더 억압적이고 남성중심적인 사이버의 문화에 의해 계속 피해를 입고, 또한 사이버 공간에서도 주체가 아닌 주변인으로 살아가야 할지 모른다.

이러한 여성 억압적인 사이버 문화에서 기술력을 바탕으로 여성주의 담론을 만들어보자는 생각으로 '98년 11월에 처음 모이게 되었다. WILL은 '98년 '이화 여성학' 홈페이지 기획단계에서 함께 하였던 '이화여성학 소모임'의 구성원들중 일부를 중심으로 처음 형성되었으며, 현재에는 '이화여성위원회', 공대 여성주의 모임 '전사(pre-history)'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과 이화 공대 컴퓨터학과 학부생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본적으로 이들은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에 대한 제반 기술력과 여성주의 담론에 관심이 있는 이화인들이다.

WILL은 '교육'을 통해 상용통신망과 Web에서 여성들이 주체가 된 사이버공간을 구축할 수 있는 기술력을 확보하고, 여성들이 배제되어 왔던 사이버공간에 적극적으로 개입, 이를 통해 '여성 정보력'의 확보를 꾀하고자 하며, 나아가 사이버내의 남성적 담론을 여성주의적 시각으로 바라봄으로써 현실공간의 여성주의 운동의 흐름과 맥을 같이하고자 한다.

'98년 겨울방학부터 매주 토요일 한국여성연구원101호에서 모임을 갖고 여성주의세미나와 '기술력 확보'를 통한 기술교육을 시작하였으며, '99년 봄학기인 지금에도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형성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국여성연구원에서 '인터넷과 홈페이지 제작 기술 교육'을 실시하였고 Web상에 WILL의 홈페이지가 곧 open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WILL은 현재 사이버공간 내에서 필요한 기술력과 정보력을 담지한 여성주의 흐름을 창출 하는데 활동의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공대여성주의모임
 전사(Pre-history)

여대라는 특수성 때문일까. 알로는 '여성주의'와 '세계 최초'를 외치고 있는 학교도 '여자'라는 이유로 우리들을 보호하려고만 하는 듯 합니다. 또한, 실력양성을 위해 한 길로 뛰라는 사회의 분위기 속에서, 그리고 전문여성을 양성한다는 이화

에서, 우리는 사회에 깔려 있는 엄연한 성차별의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는 데에는 더욱 둔해지고, 자신의 정체성을 고민해나가는 작업들에도 소홀해지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느끼는 불평등을 구체적으로 짚어보고,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여성자취공간을 만들어 보고자 하는 의지와, 또한 이에 한걸음 더 나아가 현실을 변화시켜나가는 그 과정에 이화인들과 함께 직접 참여하는 장을 만들겠다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전사'는 만들어졌습니다.

'97년 11월 경부터 그 준비모임을 시작하여, 매 방학 때마다 '낭만적인 사랑과 결혼이라는 이데올로기', '주제를 정해 세미나를 하고 있으며, 학기중에는 신입생과 재학생을 중심으로 그때그때 사회에서 또는 이화인들에게 문제시되고있는 담론 - '여성 정리하고 1순위', '온라인 성폭력', '고대생 집단 난동', '군가신제의 문제점' 등 - 들을 여성주의 시각으로 함께 고민하고 해결을 위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자보 활동과 자료집을 통해 공대인들에게 알려지고 있으며, 백지대자보를 통해공대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알리기도 합니다.

또한전사 홈페이지(<http://mm.ewha.ac.kr/~9614022>)를 중심으로 전사에서 활동했던 자료들, 여성의학, 성폭력의 법적인 대응 방법, 여성특별법 등 여성관련 자료들, 여성주의 문화(여성주의 화가 '프리다 칼로', 영화평) 등이 있습니다.

학내 여성운동 단위들이 함께하는 장
 -이화의 눈으로-

'이화의 눈으로'는 학내 여성운동이 학생들과 뚜렷한 교류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하는 생각에 '98년 여름 이화여성학 홈페이지내의 sub-depth로 '이화인들의 시각과 참여'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1학기 운영을 해본 결과 운동단위와 학생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학내에 여러 여성운동 단위들이 모두들 다른 영역에서 활동을 하고있는 것 같지만 정작 그 흐름과 하고자 하는 바는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운동의 흐름을 함께 의사소통할 메카니즘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이화의 눈으로'는 '이화여성학'의 sub-depth의 위상이 아닌 '이화 학내 여성운동 단위의 장'으로서의 공간을 만들어 함께 연대하며, 보다 활동적이고 이화인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학내 여성운동의 흐름을 함께하고자 만들어졌습니다.

이곳의 주소는 'http://mm.ewha.ac.kr/~ewhas'이며, 이곳에는 각 운동 단위들의 간략한 소개글, 연락처와 함께 홈페이지가 링크되어있고, 이화인들이 직접 사회문제들을 이야기해볼 수 있는 '토론장'과 각 운동 단위들의 활동 소식을 알 수 있는 '알림판' 등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포크노 사이트, 온라인 성폭력, 여성의학 등 여러분아에서 이화인들에게 필요한 상담 및 신고센터 또한 운영할 예정입니다.

페미니즘문화제에 도움을 주신 분들...



여성신문을 읽는 사람들의 사회는 평등하고 평화로운 사회입니다.

구독신청
(02)389-9271
http : //woman.kidb.co.kr

집현전

복사·인쇄
MAC·IBM 편집
워드대행
논문
학회지

서울시 서대문구 대현동 37-38
(가람빌딩 B1)
☎ 02) 312-9003(대)
FAX : 02) 363-3313

미고MIGO

한국에서 가장 사랑 받는 맛
미고 STYLE의 빵과 케이크 그리고
FLAVOR입니다.

이대점 : 362-6971

성신여대점 : 922-6905

도서
출판
한학문화
한 학 사

도 서 출 판
학 위 논 문
학 술 대 회 초 록 집
학 회 저 널 지
각 종 인 쇄 사
교 재 북 사
칼 라 북 사

120-170
서울 서대문구 대현동
56-132
본점/313-7593(대)
393-4149, 312-0166

저렴한 가격 특별한 서비스

충불

364-0394

달팽이가 사랑에 빠진 날

호프 양식 소주방
일일호프 단체와 모임 예약환영
예약전화 312-8177

Handwritten notes and calculations:

- 8P지 44,900 B4 2원
- 100부 400 이상 2원
- AP <100부> 100 4P 286
- 400 65
- 600 LH02
- * 25원 35원
- 지옥의 만찬 30원 40P 2원
- 362-4264
- 떡볶이 해물사리 야채밥 4P 12000
- * 3000
- 1자 1P 30 x 1200원
- 6P' 180 x 100 18000